

## 제주 신화의 영웅, ‘고도채비’에 관한 일고찰\*

이소윤\*\*

- 목 차 -

- I. 문제제기
- II. 두 영웅의 같은 행로, 다른 결과: 제주-서울-제주
- III. 현실적인, 그러나 너무나 비현실적인 영웅
- IV. 신원(伸冤)의 고도채비

### |국문초록|

신축년 난리를 배경으로 하는 <고도채비본풀이>의 주인공 고도채비는 부대각과 같이 제주-서울-제주라는 영웅의 행로를 거친다. 두 인물 모두 서울, 한양 조정이라는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영웅으로 정립된다. 그러나 두 인물의 귀향이 지니는 의미는 다르다. 임금의 하사품 대신 대국행을 결정하며 친족들로부터 역적의 혐의를 받은 부대각과 다르게 고도채비는 양총 한 자루라는 임금의 어사품을 받고 당당하게 귀향하는

\* 이 논문은 2021년 11월 19일 한국언어문화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그 당시 토론을 맡아주셨던 충남대 윤준섭 선생님과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서울대학교 알타이학연구소 객원연구원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고도채비와 동일한 행로를 거친 인물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관련 기록에서 서울로 압송되었다가 생환한 사람들의 존재는 <고도채비본풀이>의 내용이 허황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준다. 물론 생환이 쉬웠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도채비의 영웅적 성격에는 현실성과 비현실성이 복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고도채비본풀이>는 제주시 일도 이동에서 정씨 심방에 의해 채록된 조상신본풀이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신축년 난리가 특정 성씨 가문이 단독으로 겪은 사건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고도채비본풀이>는 특정 성씨 가문의 조상신이라기보다 해당 난리를 직접적으로 겪은 제주성 인근 제주도 백성들 전체의 균용조상신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주제어 : <고도채비본풀이>, 고도채비, 부대각, 영웅, 조상신, 신축년 난리, 이재수

## I. 문제제기

최근 제주 신화의 영웅이 지니는 성격에 대해서는 주로 조상신본풀이에 나타난 양이목사나 부대각이라는 인물을 통해 그 고찰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조현설의 연구를 언급할 수 있는데, 그는 양이목사나 부대각이 ‘말[言]’을 통해 의례의 제정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을 “말하는 영웅”이라고 명명하였다. 그와 동시에 이들 신화에는 중앙 권력과 지방민 사이의 적대나 제주 내부의 적대 등 다양한 양상이 표현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sup>1)</sup> 이러한 연구는 제주 신화의 영웅이 단지 항

거하는 민중의 집단적 표상<sup>2)</sup>으로서 단일하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내부와 외부의 관계에 따른 긴장된 의식 속에서 탄생하는, 보다 복잡성을 띠고 나타나는 존재임을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상신 본풀이 가운데 하나인 <고도채비본풀이>의 존재는 주목을 요한다.

<고도채비본풀이>는 일찍이 선행연구에서 신축년 난리<sup>3)</sup>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의식이 드러나는 신화로 소개된 바 있다.<sup>4)</sup> 이렇듯 <고도채비본풀이>가 1901년에 일어난 신축년 난리를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제주 신화의 영웅이 제주도 내외부에 대한 의식 속에서 출현하는 것이 일종의 서사문법이라고 한다면 근대의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등장한 고도채비도 역시 그러한 서사문법을 동일하게 따르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또한 만일 이 서사문법에서 <고도채비본풀이>가 일정하게 돌출되는 지점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이 조상신본풀이가 신축년 난리라는 특수한 역사적 사건의 배경 속에서 산출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뒤따라 제기되는 것이다.

이상의 의문들을 해소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고도채비본풀이>에 관한 본격적인 작품론을 시도한다. 이때 <고도채비본풀이>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부대각본풀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이는 그간 조상신본풀

1) 조현선, 『말하는 영웅-제주 조상본풀이에 나타난 영웅의 죽음과 말을 중심으로-』, 『동방문화비교연구』 7, 동방문화비교연구회, 2017, 121~125쪽, 130쪽.

2) 조동일, 『민중영웅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57쪽.

3) 일명 이재수의 난이라고 불리는 신축년 난리는 1897년 광무개혁으로 신설된 잡세를 징수하기 위해 제주도에 입도해 있던 경래봉세관과 1886년 한불수호조약과 1896년 교민조약 체결로 제주도에 특권을 누리고 있던 프랑스 천주교의 결탁으로 인해 이들과 대립관계에 놓여 있었던 제주도의 여러 계층이 일종의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일으킨 난리를 말한다. 난 초기에는 체구석을 비롯한 양반 계층이 난을 주도하였으나 이후 관노 출신의 이재수가 난의 전면에 나서 일반 민중의 큰 호응을 받으면서 현재는 '이재수의 난'으로 더 알려져 있다. 강창일, 『1901년의 제주도민 항쟁에 대하여-한말 천주교의 성격과 관련하여』, 『제주도사연구』 1, 제주도사연구회, 1991, 104쪽. 이와 관련하여 구비문학계에서는 허남춘이 관련 설화와 진, 소설 등을 대상으로 그 의미를 고찰한 바 있다. 허남춘, 『설화·전·소설에 수용된 제주 민중항쟁과 이재수』, 『반교어문연구』 14, 반교어문학회, 2002.

4) 김현선에 따르면 <고도채비본풀이>는 “사냥에 능하다는 서두에 이어서 신축년 난에서의 활약을 통해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는 영웅적 성격과 임금이 내놓은 시험을 통과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김현선, 『조상신본풀이연구』, 보고사, 2006, 127쪽.

이에 나타난 제주 신화의 영웅이 주로 이 부대각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에 일차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부대각과 고도채비는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우선 두 인물 모두 전설과 본풀이라는 양 갈래에서 향유되고 있다. 더욱이 전설에서 부대각과 고도채비는 더러 심돌 출신으로 이야기된다.<sup>5)</sup> 심돌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의 옛 지명으로 예로부터 장사가 많아 심돌[力窟]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전해진다.<sup>6)</sup> 심돌 출신의 인물들이 전설의 주인공을 넘어 조상신본풀이의 주인공으로, 곧 조상신으로서 제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한 지점인 것이다.

이에 2장에서는 부대각과 고도채비 관련 전설 및 본풀이의 내용을 영웅의 행로를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sup>7)</sup> 두 인물은 모두 제주-

5) 류진옥은 부대각 관련 전설이 ‘평대 부대각’과 ‘심돌 부대각’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류진옥, 「조상신본풀이 전승 양상-부대각본과 양이목사본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38, 한국무속학회, 2019, 121쪽. 또 고도채비는 전설에서 심돌 또는 시흥리 출신으로 이야기된다. “엔날 심돌엔/고도채비엔 흔 사름이/시였는디”(진성기, 『제주민담』, 형운출판사, 1977, 315쪽.)와 “그때는 시흥리에도 어떤 분이 있었는디, 고달생 그이가 달생. 고씨가 잇는디 별랑(별명)은 그 도채비라고 흡주. 고도채비 그 양반이 그 때에 포수 노릇을 흥는디”(김영돈 외, 『제주설화집성』 (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866쪽.)가 그것이다.

6)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지명유래 참조. <<https://www.jeju.go.kr/vill/siheung/intro/history.htm?act=view&seq=1127300>>

7) 부대각은 그 내용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서사의 편폭이 넓다. 김규래는 기존에 조사된 자료에 더하여 직접 채록한 자료를 합해 총 38편의 부대각 설화를 대상으로 아가장수 유형, 장사 유형, 오늬힘내기 유형, 과거 급제 유형, 원사(怨死) 유형, 여걸(女傑)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김규래, 『아가장수형 부대각 설화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4, 9쪽. 류진옥은 이에 부대각 전설에 관한 手記本 자료를 추가하고 전설의 경우 ‘날개 달린 아가장수’를 바탕으로 하는 ‘평대 부대각’과 ‘힘겨루기’를 중심으로 하는 ‘심돌 부대각’으로 유형화하였다. 본풀이의 경우에는 전설의 ‘평대 부대각’과 서사를 같이하는 ‘평대 부대각본’과 혈연 조상이면서 관직성취담 유형에 해당하는 ‘하도 부대각본’으로 분류하였다. 류진옥, 앞의 논문, 122-131쪽. 이러한 선행연구의 유형 분류에서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는 자료는 ‘평대 부대각’과 ‘평대 부대각본’으로 각각 칭해진 바 있는 아가장수 유형의 전설과 본풀이이다. 고도채비의 경우 그 자료의 양상이 정리된 적은 없다. 다만 최근 신축된 난리와 관련하여 전설과 본풀이에 드러난 기억서사를 논구하는 과정에서 전설과 본풀이의 자료 양상이 밝혀졌다. (이소윤, 「제주도 역사 전설과 그 본풀이에 나타난 기억 서사의 형성원리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21, 148쪽.) 이를 여기서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전설>

각편명	구연자	전승지	서명
고도채비	정태무(男, 59세)	제주시 일도이동	『제주 민담』

서울-제주라는 여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여정의 결과와 그 의미는 사뭇 다르다. 특히 고도채비의 여정은 고도채비의 영웅적 성격과 관련하여 깊은 시사점을 지니는바, 3장에서는 2장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고도채비의 영웅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 II. 두 영웅의 같은 행로, 다른 결과: 제주-서울-제주

일반적인 영웅들이 그러하듯이 부대각 또한 나름의 소명을 가지고 영웅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한다. 여기서 소명이란 한양의 국마(國馬)를 잡겠다는 것인데 따라서 제주도에서 시작된 영웅의 여정은 서울을 거쳐 다시 제주도에서 일단락이 되는 구조를 취한다. 먼저 서울 남산에서 호통만으로 국마를 제압한 부대각은 천금상(千金賞)에 만금(萬金)을 주겠다는 한양 조정의 말을 뜻밖에도 거부한다. 그 대신 부대각은 한양 조정에 군사를 달라면서 대국(大國)을 한번 쳐보겠다고 이야기한다. 곧 “생을 역전시키는 전리품을 가지고 귀환하는”<sup>8)</sup> 일반적인 영웅의 행로와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야기가 더 흥미진진해지는 것은 한양 조정에서 만들어준 배를 타고 군사들과 함께 대국으로 향하던 부대각이 갑자기 ‘지금 가면 내가 죽어서 돌아올지 살아서 돌아올지 모르니 고향을

각편명	구연자	진승지	서명
성교난(聖敎亂)	양원교(男, 72세)	서귀포시 영천동	『한국구비문학대계』9-3
이재수난(IV)	양기빈(男, 75세)	성산을 시흥리	『제주설화집성』(1)
이재수난	김안길(男, 60세)	표선면 토산리	『백록어문』18-19

<분풀이>

각편명	구연자	진승지	서명
고도채비본	정씨	제주시 일도이동	『제주도무가분풀이사전』

8) 물론 이때에도 영웅은 일종의 모험을 거친다. 조지프 캠벨, 『세계의 영웅신화』, 이윤기 역, 대원사, 1989, 192쪽.

돌아보고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제주도로 배를 돌리면서부터이다. 자신의 생사 여부에 관한 부대각의 불안한 예감은 복선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것도 부대각의 죽음의 이름 아닌 그의 친족들에 의해 촉발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복선은 비극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가) 참배를 해 가지고 돌아가는데 친족들이 모여가지고 저 작두를 낫다가 집안 멸망이 된다고 해서 밖으로 못나가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뭐 평대 우에다 산[墓]이 선조 그게 모신 산이 하나 있는데, 산 그 밭 땅으로 조그만한 바위가 자꾸 커. 그 장군석. 그러니깐 친족들이 올라가가지고 그 바위를 부셔버린. 부셔버리니까 아이 그 영감이 대각 하르방이 이제는 제주시로 와서 배를 띄우라 배를 띄우라 하는데, 부대각 하르방이 눈이 어두와부런(어두워져 버렸어). 야 오늘은 이렇게 안개가 꺾으니까, 눈이 안 보이는건 생각하지 않고 안개가 꺾었다고 하는 거지. 사흘도 있고 그 석달 이상이나 배에서만 살고 살아가니까, 그 군사들 물도 다 떨어져가고 경행 하루는 가만히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안개 찢게(찢 게) 아니라 눈이 어둡구나, 그제사 깨달아가지고 배를 돌려가지고 제주로 들어가. 나는 못 간다 해가지고 배를 돌려두고, 그 하르방이 꿰어앉아가지고 하느님에 비었어. 머를 소원을 했느냐 하면, 무쇠방석, 무쇠로 만든 방석 깔고 앉는 방석을 하나 내려주세요, 하니 하늘에서 방석이 떡 내려가지고 그 무쇠방석 우에 부대각 하르방이 앉안. 하르방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 지휘봉인가, 그 말처럼 한번 때리니까, 물드레(물로) 쑥 들어갔는데, 하르방도 쑥 드렁가부런. 들어가지고 거기서 죽었어.

권디(그런데) 대각 하르방이 죽었덴(죽었다고) 하니까, 친족들이 그 우에다가 산[墓]이 하나 있는데 그디(거기) 신체가 없는 산이 있어. 그 산에 대각 하르방 혼만 불러다 놓고 묘를 써가지고 일년에 제를 지내

거기에. 그 자손들이 많이 벌어진데 그 하르방이 직접 자기 혈로 난(낳은) 손자가 아니라. 그래도 어떡하냐. 자기네 조상인데. 켜(그래서) 벌어져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부대각이라 이러면은, 어느 가집니까 흐른, 평대 자손이라 그래. 이러면은 이집이 옛날 부대각 하르방이 이서난 집이로구나. 그거 평대 부침이가 그러한 유명한 하르방이 있었다는, 소위 말하면 전설이지. 전설이라기보다도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부대각 하르방은 본풀이가 들리지를 잘 않아.<sup>9)</sup>

(가)는 양창보 심방이 구연한 전설 각편 <부대각>의 일부이다. (가)에서 부대각이 자신의 생사 여부에 대해 불안함을 느꼈다면 부대각의 친족들은 부대각의 대국행 성패 여부에 대해 불안함을 느낀다. 친족들의 의견이 모아진 쪽은 부대각의 성공이 아닌 실패였다. 게다가 그 실패의 결과는 가문의 멸망이 될 것이므로 부대각의 대국행은 가문 차원에서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것이 된다. 친족들은 선산의 장군석을 부숨으로써 부대각의 죽음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설을 근간으로 하는 평대 <부대각본풀이>의 서사를 떠받치는 것은 부대각의 죽음을 방조했던 친족과 그 후손들의 죄책감이다.<sup>10)</sup> “그 하르방이 직접 자기 혈로 난(낳은) 손자가 아니라. 그래도 어떡하냐. 자기네 조상인데.”에서 알 수 있듯 비록 부대각이 직접 낳은 자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선산에 부대각의 묘를 써서 일 년에 한 번 제를 올리며 조상신으로 모시는 데에는 이러한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평대 <부대각본풀이>에서는 그러한 정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9) 조사일: 2013.2.19. 조사장소: 제주시 서사라 장호다방. 조사자: 김규래, 윤준섭. 연행자: 양창보(남, 81). 김규래, 앞의 논문, 73~74쪽.

10) “...의식의 뒷면에는 이를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대각을 희생시켰다고 하는 공모자들의 죄책감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현철, 앞의 논문, 129쪽.

(나) 꿩대 부칩잇 사름덜은 ‘저 사람 낫다가(놓아두었다가) 우리 부칩이 망혈 테니 우선 선조부뻘 가서, 선산(先山)부뻘 가서 우리 돌아보자.’ 선산에 딱 돌아보니 뒤에 바우(바위)가 흐나 장군(將軍) 모양으로 딱 혼 해 두 해 커가니, ‘그 바웃들로 헤여 너는(나는) 하르방이 탄생을 허여시난, 이것부뻘 부수와야 돼겟구나.’ 허여, 매를 물매를 앗어들여 바우를 부수와 부러트구나 (…중략…) 부대각하르바님이 바다에서 죽어 신체(身體)도 못 좇아. 경 허니 부칩이서는 그 하르바님이 신체는 못 좇으니 좋은 당(땅)에 들어간 헛 봉분(封境)을 허고 비(陣)를 세와 놓고 일년에 혼번 묘제(墓祭)를 딱 지난, 친족(親族)덜은 다 모여서 참배(參拜)를 헛디다. 일본(日本)도 부칩이 즈손덜(子孫)이 만이 가고 육지(陸地)에도 많이 잇고, 부산(釜山)에도 많이 잇고, 울산(蔚山)에도 부칩이 많이 삽니다. 허난, 그 집집마다 굿을 헐 때는 그 하르바님을 위로적선(慰勞積善)을 아니 허면은 덕(德)을 못 받는 법(法)이라. 영 허여 부대각 하르바님이 묵고뵤은(맑고맑은) 일월조상님이로구나.11)

(나) 인용문을 보면 부대각이 바다에서 죽어 그 시체도 찾지 못하자 친족들은 “좋은 당(땅)에 들어간 헛 봉분(封境)을 허고 비(陣)를 세와 놓고 일년에 혼번 묘제(墓祭)를 딱 지”낸다. 그리고 부대각에게 “친족(親族)덜은 다 모여서 참배(參拜)를” 하는 것이다. 이때의 참배는 “그 집집마다 굿을 헐 때는 그 하르바님을 위로적선(慰勞積善)을 아니 허면은 덕(德)을 못 받는 법(法)”이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가문의 영광과 안위를 구하기 위한 참배가 아니다. 자칫 부대각이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자신들의 판단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부대각을 ‘위로’함으로써 ‘적선’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다. 그간

---

11) 김현선, 앞의 책, 331쪽.

평대 <부대각본풀이>의 이러한 면모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 부대각을 주저앉힌 가문보존의식의 발로로 해석된 바 있다.<sup>12)</sup> 그러나 그러한 친족의 판단이 과연 허무맹랑한 것이었겠는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상을 바꿔보려 했던 무수히 많은 영웅들이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제주도민들은 실제 역사를 통해 터득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제주도는 19세기 후반 이래 약 반세기에 걸쳐 전도적인 집단적 민중봉기만 다섯 차례에 이르렀을 정도로 민란이 빈발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1862년의 임술민란과 김지·이완평의 난, 1896년의 반제반봉운동, 1898년의 무술민란, 그리고 1901년의 신축민란까지 몇몇 비범한 인물들에 의해 난이 잇달아 일어났으며 그때마다 영웅은 중앙에 의해 무력하게 제압되었던 것이다.<sup>13)</sup> 이렇게 보면 부대각을 죽음으로 내몬 친족들의 판단은 지극히 냉정한 현실주의적인 인식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부대각의 영웅적 업적은 제주를 벗어나 한양에서 국마를 잡은 것으로 끝이 난다. 그가 지닌 영웅적 기상은 대국을 가기 전 잠깐 들린 고향 제주에서 저버리고 마는 것이다. 영웅의 행로는 제주-서울-제주라는 순환적 여로로 귀착되며 지독히 현실주의적이었던 친족들의 판단 때문에 영웅은 제주와 서울을 벗어나 대국으로까지 자신의 지경을 확대해나가지 못한다. 부대각이 보여주는 영웅의 행로를 감안할 때 고도채비 역시 조상신본풀이에서 제주-서울-제주라는 동일한 행로를 걷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로가 지니는 의미는 사뭇 다르다. 먼저 전설에서 고도채비는 중심 인물이 아니다. 난의 중심 인물은 어디까지나 이재수로 오히려 고도채비는 신축년 난리의 경과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잠깐 언급되는 인물일 뿐이다.<sup>14)</sup>

12) 조현설, 앞의 논문, 128~129쪽.

13) 강창일, 앞의 논문, 122쪽.

(다) 그때는 시흥리에도 어떤 분이 있었는데, 고달생 그이가 달생. 고씨가 있는데 별량(별명)은 그 도체비라고 흡주. 고도체비 그 양반이 그 때에 포수 노릇을 하는데, 포수도 선택이 되어 가지고 강우백씨하고 2찌 제주시까지 가 가지고 제주시에 가서, 강우백이나 오대현이는 그렇게 헛더라도 그렇게 배여 죽이지 못했었다, 이재수는 췌인 다 각리에서 잡아갈 것 2트면 다 문초혜 가지고설랑 췌가 경헌 것은 훈 방조치하고 췌가 중한 놈은 다 일렬로 딱 세워놔 가지고설랑 장검으로 그냥 쳐 죽였주. 그런 용기를 가진 쳐 죽여놓고, 그 피 부튼 장검은 갑실신이라고 잇는다. 갑실신에 싹 피를 따까 두고 거기 돌아벤 드세기 (돼지) 딱 그차 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더라고. 그렇게 장군의 기세를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그 이재수가 장군 노릇을 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구마실이라고 불란서 사람인데, 우리 말을 성명으로 구마실, 그 사람이 번역을 한 거지. 이 제주도 말하자면 구마실이라고 한 사람은 성교 신부로 완, 그쯤 돼어노니깐 제주성 남문에 올라 가지고 설랑 그 시야를 이렇게 탐지할 때에 이 그 도체비라는 포수가,

“저 쏘아서 죽여 버리민 어떠하고.”

하니까, 오대현이나 강우백이는,

“웨국 사람이라서 죽여 버리민 국제문제가 있으니까 말라.”

하니까,

“그러면 겁이라도 내와야겠수다.”

해서 총으로 쏘은 것이 그 요새에는 얘기는 보통 그 무슨 모자라 한다마는 그 모자만 쏘아 부러젠 하여.<sup>15)</sup>

(다)에서 고도체비는 달생이 그의 본명으로, 도체비가 그의 별명으로

14) 신축년 난리와 관련한 자료의 양상은 이소윤, 앞의 논문, 33-35쪽 참조.

15) 김영돈 외, 앞의 책, 866~867쪽.

이야기된다. 이는 고도채비가 실존 인물일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데 난의 과정에서 포수였던 그는 뛰어난 총 실력으로 제주성 남문에 서서 성 밖을 탐지하고 있던 프랑스 구마실 신부를 쏘아버리려고 한다. 이것이 오대현이나 강우백과 같은 다른 난 지도자들에 의해 만류되자 고도채비는 ‘그렇다면 겁이라도 쥐야겠다’면서 신부의 모자를 총으로 맞추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각편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도채비가 쏜 총알이 신부의 모자를 맞추자 신부는 “하이구, 이런놈의 재주 봐라. 저기왕(저기와) 이디(이곳) 거리가 몇 천 메타가 되겠느냐 말야. 내 몸팍이나 흉중(胸中)이나 항햏야 죽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겁만 내우자구 헛 게 아니냐.”하고 감탄했다고 한다.<sup>16)</sup> 이렇듯 신축년 난리의 경과를 설명하는 가운데 고도채비의 비범한 총 실력이 부수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상신본풀이에서 고도채비는 시종일관 난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한다. <고도채비본풀이>의 전문을 인용문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라) 옛날 심똥엔/고도채비엔 헛 사름이/시였는디

놀썩기가 천하 일등이랴썩다.

고도채비 사농도 잘 햏연/할락산이 노리 강늑은

들러 강 손으로 심곡/햏였썩다.

신축년 날리 때도/고도채비가 들연/성교곶 늑졌썩다.

16) 관련한 부분의 전문을 제시하면 이와 같다. “황세왔인가? [조사자: 예, 있습니다.] 게니(그러니) 그게 고도채비엔 햏주. 어딴 사름인고 햏니, 옛날 사냥햏는 총, 포수들, 사농바치들, 포수로 같이 간 사름이 수십 명이였썩. 성안을 항햏여 가지고 공뿔(공포를) 헛 번 평햏게 노니깐, 신부(神父)엔 헛 게 성교에서 게난에(그러니까) 교주(敎主)이지, 그게. 법국(法國)놈인가 신부가 성위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햏는가고 구경햏젠 올랐더니, 황세왔디서 썩햏게 뽕렏이가(총알이) 놀아오는디, 그 신부가 쏜 모자 햏 착이(찍이) 썩햏게 날아갔덴 말이며. 햏 그만 겁을 바락(외락) 먹연 몰썩(풀썩) 드러얏안, “하이구, 이런놈의 재주 봐라. 저기왕(저기와) 이디(이곳) 거리가 몇 천 메타가 되겠느냐 말야. 내 몸팍이나 흉중(胸中)이나 항햏야 죽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겁만 내우자구 헛 게 아니냐.” 그런 말이 있는디.” 현용준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423쪽.

신축년 날리 때/모관 동문을/고도체비가 치는디  
 성우티서 서양 신부가/양총을 들린 팡팡 쏘와가도  
 고도체빈/일로 피훅곡 절로 피훅곡/훅멍  
 화승총으로만 서양 신불 쏘완  
 서양 신부 모줄 시번이나/배졌쑤다.  
 화승총으로 쏘완 모줄 배껴가난  
 성교페들이 혼비백산훅연/돌아나부난  
 그젠 동문이 헐리고/고도체비가 입성을 훅였쑤다.  
 그 땐 나라가 악훅난/나라은 성교펜을 들언  
 “난을 일으킨 건/매딱 우리 백성들 죄옌” 훅연  
 삼으스 훅고 삼읍 선봉을/뎐 심연 나라일 가난  
 어전에 국문을 훅는디/전하가 고도체비고라  
 “활을 잘 쏘뎡 훅난/얼매나 쏘와지느닌”/들으난  
 고도체빈/“잘은 못쑤네다만/물에 비춘 생이 정돈  
 굴메만 보왕 쏘와지쿠덴”/훅난  
 “게멘 훅번 훅여 보렌”/훅연,  
 활을 내여주난/나인 시건  
 큰 장태에 물 질어당 노렌“/훅연  
 ”그 우티로 생이 늘건/쏘와 보렌“ 훅였쑤다.  
 그영 훅연 훅슬 시난/그 우티로 밥주리 훅머리가/늘았쑤다.  
 고도체빈 그 굴멜 보명/밥주릴 쏘완 털어치우난  
 성상이 크게 감탄을 훅고/양총 훅즈룩을 하사훅였쑤다.  
 고도체빈 그 총을 하사반안/느려왔는디  
 그르후제 므실에서도/그 총을 빌지 그리와도  
 어사품이라부난 누게도/긱딱 훅질 못훅였쑤다.  
 후제 고도체빈/균웅조상이 되었쑤다.

군웅만관 때 소릴 흐쿠다.  
 우가 돌아갑네다./제가 돌아갑네다.  
 고매꽃 고씨 영갑/놀단 군웅이우다.  
 독지엔 활을 매곡/허리엔 걸랑 차곡  
 아끗흐민 철리 가곡/아끗흐민 말리 가곡  
 가시낭굽마다/어옥굽마다  
 꿩 사농 매 사농/노리 사농 흐영  
 동니 존장 분육흐곡/신축년 대날리에  
 선봉장으로 일만군행/거느리단 군웅이우다.  
 활을 받고 살을 받고/구신에 하강일 반양  
 만관놀자.<sup>17)</sup>

(라)에서 고도채비는 날쌔기로는 천하 일등이며 한라산의 노루와 사슴을 맨손으로 잡던 비범한 인물로 이야기된다. 그런 고도채비가 영웅으로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은 단연 신축년 난리로, 그는 특유의 날쌔기로 서양 신부가 쏘아대는 양총을 이리저리 피해내는 면모를 보여준다. 이에 더하여 전설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서양 신부의 모자 맞추기가 그대로 구술되는데, “화승총으로만 서양 신불 쏘완/서양 신부 모줄 시번이나/배 꺾쑤다.”라는 구절에서 그가 의도적으로 서양 신부의 모자만을 맞추었음이 암시되고 있다. 이러한 고도채비의 활약상에서 결정적인 국면은 고도채비가 쏜 화승총 때문에 성교패들, 즉 천주교도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고 그 덕에 동문이 헐리면서 그가 제주성에 입성하였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고도채비의 영웅적 활약상이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부대각을 비롯한 본풀이의 영웅들이 제주도가 아닌

17)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692쪽.

서울이나 바다 건너의 타국 등지에서 영웅적 업적을 쌓고 다시 제주로 귀환하는 여로를 취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특기할 사실은 “그 땐 나라가 약호난/나라은 성교괘을 들언/“난을 일으킨 건/매딱 우리 백성들 죄연” 호연/삼으스 호고 삼읍 선봉을/뎌 심연” 갔다는 것이다. 고도채비의 영웅적 업적이 나라, 곧 다시 말하면 한양 조정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로 인해 고도채비는 부대각처럼 영웅으로서 나름의 사명을 지니고 서울에 당당히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영웅적 업적이 모두 끝난 후에, 그리고 그러한 업적이 죄로 규정된 후에, 서울에 역적의 이름으로 ‘잡혀’간다. 만일 서사가 여기서 종결되었다면 고도채비는 군웅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임금에게 국문을 당하던 고도채비는 그의 활 실력을 임금 앞에서 뽐내게 되고 임금으로부터 양충 한 자루를 하사받은 뒤 제주도로 귀환한다. 한양 조정의 인정을 받고도 전리품 없이 귀향했던 부대각과 우여곡절 끝에 한양 조정의 인정을 받고 전리품을 얻은 채 귀향하는 고도채비의 표정은 분명 다르다.

고도채비는 부대각과 마찬가지로 제주-서울-제주라는 영웅의 행로를 거친다. 두 인물 모두 서울, 한양 조정이라는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영웅으로 정립된다. 이 점은 역시 제주 신화의 영웅이 제주도 내외부에 대한 의식 속에서 주조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영웅의 행로에서 두 영웅의 귀향이 지니는 의미는 남다르다. 주지하듯 평대 <부대각본풀이>에는 한양 조정에 대한 불신이 놓여 있다. 한양 조정이 부대각을 영웅으로 인정했지만 결국에는 부대각을 역적으로 규정할 것이라는 불신이다. 물론 여기에는 부대각이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계산이 먼저 놓이게 되는 것인데 따라서 이러한 패배주의적 인식은 어찌 보면 놀랍도록 소름끼치는 현실주의적 인식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부대각의 귀향은 그러한 불신에 기반해 영웅을 저지하려는 친족들의 술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영웅의 최종 귀착지인 제주에서 영웅은 단순히 자신의 행(行)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生)을 끝내게 되는 것이다.

<고도채비본풀이>에 나타나는 한양 조정 역시 이러한 불신을 확증해주는 양상을 보여준다. 제주 백성과 천주교도 사이의 싸움에서 한양 조정이 천주교도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반전은 고도채비가 임금의 어사품을 받고 귀향한다는 사실에 있다. 부대각의 귀향이 비극이 되었던 것과 달리 고도채비의 귀향은 비극이 아니다. 고도채비는 역적으로 규정될 수도 있는 고비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도채비의 귀향은 승전보를 올리는 귀향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고도채비가 지니는 이러한 차별성이 실제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근대에 고도채비라는 영웅의 신화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니는 현실적 측면과 더불어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현실적인 측면이 상호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이 지점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 III. 현실적인, 그러나 너무나 비현실적인 영웅

1901년 봄, 대정읍에서는 봉래경세관과 일부 천주교도들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 상무사라는 조직이 결성된다. 민회나 등소를 통해 비폭력 운동을 지향했던 상무사가 노선을 달리하게 된 것은 천주교도의 무력 대응이 있고 나서다. 이를 기점으로 운동의 초점이 세폐(稅弊)에서 교폐(敎弊)로 변화했고 그에 따라 운동의 성격도 변화했다. 이재수를 필두로 한 민군의 무력투쟁이 계속된 결과, 관에서는 여타의 농민봉기진압책과 같이 장두를 최우선으로 체포하여 민군을 해산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7월 18일 서울로 압송된 장두들은 프랑스의 간섭을 받아가면서 평리원 재판관을 받았고 그중 이재수·강우백·오대현이 10월 9일 교수형에 처해졌다.<sup>18)</sup> 난의 진행과 정리 과정에서 여러 문서가 만들어졌는데, 천주교도 측에서 작성한 ‘난의 수괴, 장두(狀頭), 소실된 물품 열록’을 보면 대정 광평리 출신의 수포수(首砲手) 고달봉의 이름이 보인다.<sup>19)</sup> 전설에서 고도채비의 본명이 고달생으로 이야기되었던 것을 상기하면 이 수포수의 존재는 의미심장하다.

동일 인물임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다른 자료에서도 뛰어난 총 실력을 가진 고씨 성(姓) 포수의 존재가 뚜렷이 확인된다. 1902년 음력 2월 경, 제주 교우 강인봉이 한성 종현 성교당 주교 앞으로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마) 작년 봄 제주에서 발생한 민란은 그 근본 이유가 채구석이 사사로이 상무사를 세운 것에서 비롯되었음은 이미 국내외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를 감옥에 가둔 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결안하지 않은 것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중략…)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 채구석이 아무리 거침없이 말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법에는 공정한 이치가 있고, 죄에는 적합한 법규가 있으니 채구석에 관한 안건은 많은 논의를 기다리지 않고도 판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고영수, 조사성, 김남적, 이원방, 강백 등은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법규를 적용했는지 실제로 알 수 없습니다. 고영수는 민란군의

18) 김양식, 『1901년 제주민란의 재검토』, 『제주도연구』 6, 제주학회, 1989, 137~149쪽.

19) 『제주 대정군 사립 상무사(商務社) 수괴 및 3군 각 리의 난민 장두(狀頭) 성명록』,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한국교회사연구소 역·편, 『신축교안과 제주 천주교회』, 천주교 제주교구, 1997, 139쪽.

우두머리 포수로서 교인 112명을 포살했다고 한 것은 그 스스로 떠들고 다녔으며 사람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찰리사도 이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그를 별방진장 겸 순포영장으로 차출하여 실행하였으니, 이 역시 섬 전체에 모두 알려진 사실입니다.<sup>20)</sup>

강인봉은 초기에 난을 주도했던 그 당시 대정군수 채구석이 구인되어 금고생활 형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외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때 “민란군의 우두머리 포수로서 교인 112명을 포살”한 고영수를 언급하는 것이다. 강인봉에 따르면 고영수는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찰리사로부터 별방진장 겸 순포영장으로 임명된다. 그런데 난 참여자 중 한 사람이었던 백학탄의 진술서에 이러한 기록이 보인다. “고도참(高道讖)이 교인을 죽인 것이 52명인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 고도참은 살인한 공로로 별방진장(別防鎭將) 겸 순포영장(巡補嶺將)에 차정되었습니다.”<sup>21)</sup> 여기서 고도참이 고도채비와 발음이 유사함은 주목을 요한다. 물론 본고에서 고도채비를 바로 고영수 혹은 고도참이라 불리는 인물로 확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고도채비라는 영웅이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더욱이 강인봉의 편지에서 알 수 있듯 고도채비로 추정되는 고영수는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났음이 암시되는데 실제 평리원 판결문을 보면 이재수 등 3인만 교수형에 처해지고, 김남혁·조사성은 15년형에, 고영수·이원방은 10년형에 처해졌다.<sup>22)</sup> 그나마 그 형도 다 살지 않고 이들

20) 『제주 교우 강인봉(姜寅奉)의 서한』,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한국교회사연구소 역·편, 위의 책, 189~191쪽.

21) 『백학탄(白鶴潭)의 다짐[俵音]』,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한국교회사연구소 역·편, 위의 책, 201쪽.

22) 『해제』, 1901년 제주항쟁 기념사업회 편, 『신축제주항쟁자료집』 I, 각, 2003, 7~8쪽.

은 이듬해 풀려났던 것으로 사료된다. 1902년 12월 이들이 발신인으로 된 정단(呈單)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장두가 교수형에 처해졌고, 우리들이 징역형에 처해졌지만 이는 형세가 부득이했던 탓이며, 우리들의 행위가 조정 법률의 근본 의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으므로 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살아 돌아왔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서울에 다녀오느라 병참소의 군수 비용을 빌렸으므로 각 면·리에 이를 갚기 위한 재정적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다.<sup>23)</sup>

여기까지 보면 서울에 역적으로 끌려갔으나 무사히 제주로 살아 돌아온 고도채비의 행로가 반드시 허황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김남혁, 조사성, 고영수, 이원방 등 여러 인물이 실제로 그러했던 것이다. 이렇게 고도채비의 영웅적 면모는 실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현실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도채비의 영웅적 면모에 대해 단순히 실제로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존재했다는 말로 같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제의 역사가 그러했음에도 여전히 역적으로 규정되어 서울로 압송되었으나 오히려 무사히 생환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비현실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데에 있다. 아래 인용문은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의 『속음청사(續陰晴史)』의 일부분이다.

(바) 11일(25일 庚申): 맑음.

들으니, 강봉헌, 이용호, 이범주, 장운선, 채구석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병정들이 동서진으로 나누어 나가 민중을 불러들였다.

오각에 서진민중이 성에 들어오는데 포수들은 모두 총을 매었다.

오직 장두 이제수와 포수 70여 명만이 관문으로 들어오도록 받아들이고, 나머지 민중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23) 『제주인들의 정단(呈單)』,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역·편, 앞의 책, 233쪽.

포수의 총을 거두고 난 후 성문밖으로 내보내면서 다만 장두만 남겼다.

포각에 동진장두인 오대현, 강오백, 김남학이 들어오니 이제수와 같이 영문 내아에 안치하였다.

저녁 무렵 찰리사와 대대장 윤철규가 관덕정에 나가 앉아 여러민중을 효유하여 곧 해산하도록 하니, 민중들은 장두를 놓아줄 것을 청하자, 윤이 말하기를 “내일 강봉헌 등과 대질 심사하고 난 다음에 놓아보낼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고 하였다.

양진의 민들이 성안에 꼭찔으며, 병정들은 재취에 있다가 성밖으로 나가, 오히려 장두를 호명하며 찾는데 마치 거사가 사당패를 찾듯이 한다.

아마도 종전에 이 섬의 민요장두라는 게 모두 억지로 핍박하여 채워놓은 자이고, 그 밑에 집사 수십명이 마음먹은대로 위복(威福·주: 때로는 위협을 가하고, 때로는 복덕을 베풀어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을 했던 것 같다.

매번 한번 소동이 지나면 장두는 결국 죽었으나, 이 (집사) 무리들은 홀로 살아남았다. 그리고서 걸핏하면 바로 소요를 일으키기를 능사로 삼으니, 성격이 또한 흉포·완악하고 특출·건방져서 조정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무리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난은 그칠 때가 없을 것이다.

(…하략…)

12일(26일 辛酉): 맑음.

두곳의 장두들이 관부안에 있는데, 나머지 민중은 성밖에 있으면서 아직도 해산을 하지 않는다.

13일(27일 壬戌): 맑음.

병정들이 성을 나가 나머지 민중을 쫓아 해산시켰다. 장두인 오대현, 강오백, 이제수에게 칼을 썬 장방에 가두었다.

14일(28일 癸亥): 맑음.

동촌 여인들 수백명이 서로 이끌고 관에 들어와 장두들을 놓아줄 것을 청하자, 병정들로 하여금 쫓아내게 하였다.

백성들의 소청이 답지하였는데, 모두 봉세관이 범을 어기고 재산을 횡탈하였다고 하니, 거의가 증거를 낼 수 없는데도 강봉헌은 해심에 포위되어 있고, 찰리사도 역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15일(29일 甲子): 맑음.

서촌 여인들 수천명이 장두를 놓아달라고 요청하는 일을 등장하자, 병정들이 손을 저어 쫓아내어도 가지를 앓았으며, 간혹은 넘어져 다치는 자도 있었다. 이 고장 여풍은 참으로 몹시 악독하다.

여인들은 병정들에게 욕설을 하며 말하기를, “왜놈의 병정같으니라구, 백성을 살리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일 테냐”, 또 말하기를 “백성의 괴로움은 헤아리지 않고 날마다 놀기만 일삼느냐”고 하였다. 아마도 조련하는 것을 놀이하는 것으로 여긴 듯하다.

-여인들이 사발에 물을 떠다가 중대장에게 퍼부으며, 계속 포악하였으니 해괴하다.-

17일(초2일 丙寅): 맑음.

김녕촌의 여인들이 또 다시 등장을 하며, 장두를 풀어달라고 청하였다. 찰리사는 혁폐할 17조항을 전령하는데 모두 봉세관폐에 대한 것이었다.

촌민 남녀들이 날마다 무리를 지어 등장을 하고, 또 술, 고기, 밥,  
떡을 차려다가 장두에게 와서 먹여주며 말하기를,

“만민들의 일을 하시다가 외로이 이런 고생을 받으십니다”고 하였다.

세, 교폐에서 받은 아픔이 뺏속까지 스며들었음을 볼 수 있다.<sup>24)</sup>

제주도에서 유배 중이던 김윤식은 신축년 난리의 경과를 일기로 소상하게 기록하였다. (바)는 이재수를 비롯한 여러 장두들이 관아에 가두어지자 여러 날에 걸쳐 제주도 백성들, 그 중에서도 여인들이 모여 그들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식의 일기 내용에서 관아에 사로잡힌 장두들의 죽음이 확실시된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윤식은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두 차례의 민요(民擾)를 경험하는데, 1898년에 일어난 방성철의 난과 1901년에 일어난 이재수의 난이 그것이다. 두 차례의 경험을 통해 김윤식은 “매번 한번 소동이 지나면 장두는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터득한다. 이는 제주도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을 터, 그러므로 장두들을 풀어달라는 제주도 백성들의 계속된 요청에는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내고자 하는 간절함과 처절함이 담겨 있다. 제주도 백성들은 “병정들이 손을 저어 쫓아내어도 가지를 앓았으며, 간혹은 넘어져 다치”기도 했을 뿐 아니라 “날마다 무리를 지어 등장을 하고, 또 술, 고기, 밥, 떡을 차려다가 장두에게 와서 먹여”주기까지 하는 것이다.

장두들의 죽음이 기정사실이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그중 일부가 생환했다는 사실은 그래서 더 비현실적이다. 이는 “그 땐 나라가 악호난/나라은 성교괘을 들언/“난을 일으킨 건/매딱 우리 백성들 죄옌””이라고 했던 익숙한 결말을 전도시킨다. 생환자들의 존재는 백성들이 난을 일으

24) 김윤식, 『속음청사』, 1901년 제주항쟁 기념사업회 편, 앞의 책, 153~158쪽.

키게 된 폐단이 따로 있었으며 고로 백성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죄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증해준다. 따라서 서사 초반에 삼의사로 언급되었으나 실제 교수형에 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재수와 오대현, 강우백은 이후 서사에서 자취를 감추어버린다.<sup>25)</sup> “신축년 대날리에/선봉장으로 일만군병/거느리단 군웅” 고도채비만이 언급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금이 고도채비에게 하사한 양총 한 자루에 이후 마을 사람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다는 점은 유의미하다. “ㅁ실에서도/그 총을 빌지 그리와도/어사품이라부난 누게도/꺾딱 흐질 못”하는 것인데 이는 이 양총 한 자루가 지니는 표상성 때문인 듯 싶다.<sup>26)</sup> 양총 한 자루는 결국 한양 조정이 제주도 백성들에게 신축년 난리의 죄가 없음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뜻하기 때문이다. 평대 <부대각본풀이>에서 제주 내부의 영웅은 한양 조정이라는 제주 외부에 의해 역적으로 규정될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고도채비는 그러한 불신을 뒤집는 이 비현실적인 성격으로 인해 영웅이 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이재수가 신이 되지 못하고 고도채비가 신이 된 사실에 대해서도 답을 제공해준다. 말하자면 이재수가 유죄의 증좌라면, 고도채비는 무죄의 증좌인 것이다.<sup>27)</sup>

25) 이재수와 오대현, 강우백은 제주도에서 흔히 삼의사로 일컬어진다. 대정을 보성리 홍살문 거리에 이재수, 오대현, 강우백 3명의 장두의 뜻을 기려 <제주대정군삼의사비>가 세워져 있다. 박재영, 「전통사회와 외래종교의 문화충돌-이재수의 난을 중심으로」, 『경주사학』13, 경주사학회, 2013, 151쪽. 2021년 11월 7일에는 제주큰굿보존회의 서순실 심방이 신축항쟁 희생자 모두를 위한 “장두추모굿”을 신축년 난리가 일어났던 장소인 관덕정에서 집전하였다. 허준호, <제주 신축항쟁 현장 관덕정서 120년 만에 열리는 ‘추모굿’>, 《한겨레》, 2021.11.05. <<https://www.hani.co.kr/arti/area/jeju/1018121.html#csidx3813963273858ac97594db7444ad6f>>

26) 게다가 임금이 하사한 양총 한 자루를 가지고는 부대각처럼 대국을 치겠다는 야망을 품어볼 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고도채비는 현실적인 차원의 소박한 영웅이 된다.

27) 조상신본풀이에서 신축년 난리의 주역인 이재수가 아니라 고도채비가 균웅조상으로 모셔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소운, 앞의 논문, 209-211쪽에서 자세하게 논의한 바 있다. 그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중요한 것은 다른 기역서사들과 달리 신축년 난리 관련 기역서사는 최초로 제주도 ‘내부’를 표상하는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나선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중략...) 비극은 이렇게 제주도 ‘내부’를 표상하는 인물인 이재수가 역사 속에서 다름 아닌 ‘역적’으로 기입된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도채비본풀이>에서 이재수의 폐제는 차마 본풀이가 역적

#### IV. 신원(伸冤)의 고도채비

<고도채비본풀이>가 실린 진성기 선생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은 그 스스로 고백하듯이 “완벽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니, 하나씩 둘씩 정리하자는 데서, 때로는 유인물로, 손이 닿으면 인쇄로, 어느 것이라 가릴 필요없이 내어 놓”<sup>28)</sup>은 결과물이다. 따라서 “혼자 힘으로는 너무도 벽차 뜻대로 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때로는 오히려 뜻밖의 부작용을 초래”<sup>29)</sup>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혹자에게는 더러 “깊이 없고 체계 없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비난”<sup>30)</sup>을 받았다고 한다. 물론 그럼에도 다양한 심방을 대상으로 방대한 양의 무가를 수집한 진성기 선생의 노고는 사라지지 않는다.<sup>31)</sup>

다만 진성기 선생이 자인하고 있는 부작용을 염두에 둘 때 <고도채비본풀이>가 조상신본풀이로 분류된 사실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조상신본풀이가 특정한 가문을 수호하는 신에 대해 그 내력을 읊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어떤 성씨 가문에서 이 고도채비를 자기 가문의 수호신으로 옹위했을까 하는 물음이 자연스레 추인되는 것이다. 물론 제주시 일도 이동의 정씨 심방이 구술했다고 되어 있고 또 제주시 일도 이동 근방이 신축년 난리의 격전이 벌어졌던 제주성 인근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고도채비는 그 일대에 거주하는 특정 성씨 가문의 조상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신축년 난리가 특정 성씨 가문만이 겪은 사건이 아닌 만큼

---

을 조상신으로 수용할 수는 없었던 상황과 관련시켜 이해해볼 수 있다. (...중략...) 본풀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역적으로 형장의 이슬이 되어버린 영웅이 아니라 임금의 어사품을 허사받고 당당하게 귀향한 영웅이다. 이제수에 대한 기억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만 한다.”

28) 진성기, 앞의 책, 2002, 840쪽.

29) 진성기, 위의 책, 2002, 842쪽.

30) 진성기, 위의 책, 2002, 838쪽.

31) 홍태환, 「무속 기록의 엄정함과 총합성, 그리고 사전」, 『한국무속학』 37, 한국무속학회, 2018, 218쪽.

어찌 보면 <고도채비본풀이>는 특정한 하나의 성씨 가문의 조상신이라기보다 해당 난리를 직접적으로 겪은 제주시 일도 이동 인근 제주 백성들 전체의 조상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축년 난리에서 비롯된 역적이라는 혐의의 신원(伸冤)이 간절히 필요했던 사람들 말이다. 따라서 그들은 당대 신축년 난리에서 제주도 백성들이 무죄라는 사실을 표상하는 생환자를 균용조상으로 포착함으로써 이를 신화와 의례에 남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직도 신축년 난리의 원인은 천주교도의 교폐에 있다고, 이재수를 비롯한 장두와 제주도 백성들은 죄가 없다고 구술하는 것이 지배적인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어찌면 고도채비는 이렇게 활자로만 살아남아 지금도 여전히 신원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자료

- 1901년 제주항쟁 기념사업회 편, 『신축제주항쟁자료집』 I, 각, 2003.
- 김영돈 외, 『제주설화집성』 (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한국교회사연구소 역·편, 『신축교안  
과 제주 천주교회』, 천주교 제주교구, 1997.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 \_\_\_\_\_, 『제주민담』, 형운출판사, 1977.
- 현용준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2. 논저

- 강창일, 「1901년의 제주도민 항쟁에 대하여-한말 천주교의 성격과 관련하여」,  
『제주도사연구』 1, 제주도사연구회, 1991, 91~144쪽.
- 김규래,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4.
- 김양식, 「1901년 제주민란의 재검토」, 『제주도연구』 6, 제주학회, 1989, 125~  
165쪽.
- 김현선, 『조상신본풀이연구』, 보고서, 2006.
- 류진옥, 「조상신본풀이 전승 양상-부대각본과 양이목사본을 중심으로」, 『한국  
무속학』 38, 한국무속학회, 2019, 113~150쪽.
- 박재영, 「전통사회와 외래종교의 문화충돌-‘이재수의 난’을 중심으로」, 『경주  
사학』 13, 경주사학회, 2013, 135~156쪽.
- 이소윤, 「제주도 역사 전설과 그 본풀이에 나타난 기억서사의 형성원리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21.
- 조동일, 『민중영웅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 조지프 캠벨, 『세계의 영웅신화』, 이윤기 역, 대원사, 1989.

- 조현설, 「말하는 영웅-제주 조상본풀이에 나타난 영웅의 죽음과 말을 중심으로-」, 『동방문화비교연구』 7, 동방문화비교연구회, 2017, 115~133쪽.
- 허남춘, 「설화·전·소설에 수용된 제주 민중항쟁과 이재수」, 『반교어문연구』 14, 반교어문학회, 2002, 63~104쪽.
- 홍태한, 「무속 기록의 엄정함과 총합성, 그리고 사진」, 『한국무속학』 37, 한국무속학회, 2018, 207~226쪽.

### 3. 기타

-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지명유래 참조. <<https://www.jeju.go.kr/vill/sihung/intro/history.htm?act=view&seq=1127300>>
- 허준호, <제주 신축항쟁 현장 관덕정서 120년 만에 열리는 ‘추모굿’>, 《한겨레》, 2021.11.05. <<https://www.hani.co.kr/arti/area/jeju/1018121.html#csidx3813963273858ac97594db7444adf6f>>

<Abstract>

## A Study of Jeju Mythology's Hero, “Godochaebi”

Lee, So-yun

Godochaebi, the protagonist of “Godochaebi Bonpuri,” set in the Disturbances of the Year of White Ox (Shinchuk), goes through the path of a hero named Jeju-Seoul-Jeju like Budaegak. Both characters are established as heroes in their relationship with the outside world of Seoul and Hanyang. However, the meaning of the two characters' returns home is different. Budaegak is suspected of being a traitor to his relatives, but Godochaebi returns home proudly after receiving the king's gift.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re were people who went through the same path as Godochaebi. In the relevant records, the existence of people who were sent to Seoul and returned to life indicates that the contents of “Godochaebi Bonpuri” were not only for vanity. Of course, rehabilitation was not easy.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heroic nature of Godochaebi is a combination of reality and the fantastical.

Meanwhile, “Godochaebi Bonpuri” is classified as an ancestral god.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Disturbances of the Year of White Ox (Shinchuk) was not an incident that a specific family

name experienced alone. It is possible that “Godochaebi Bonpuri” was not an ancestral god of a particular family, but rather an ancestral god of the entire Jeju people near Jeju Castle, who directly suffered from the turmoil.

Key words : “Godochaebi Bonpuri”, Godochaebi, Budaegak, hero, ancestral god, the Disturbances of the Year of White Ox (Shinchuk), Lee Jae-soo

이 논문은 2022년 1월 10일에 접수되어 2022년 2월 3일에 심사 완료되고 2022년 2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